2020 KF세계영화주간
KF Online World Cinema Week 2020

불가리아 Bulgaria

남극에서 온 편지
Letters from Antarctica

Drama | 2019 | 110' | Color | G

8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는 아들을 슬픔에서 지켜주고자 아들에게 아빠가 남극 탐험을 떠났다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아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는 것은 엄마와 아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아빠에 대한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어지고, 아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외면한다. 엄마는 결국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고 아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며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된다.

A single mother, wanting to protect her eight-year-old son from pain, lies to him that his dad is away with an Antarctic expedition. But postponing the confession about his father's death causes damage to her and her son. The lie spins out of control; the boy discovers the truth and shuts himself away from her. Eventually, she manages to accept the pain and win his trust back so they can move on.

Director
스타니슬라프 돈체프 Stanislav Donchev

스타니슬라프 돈체프는 뉴불가리아대학교에서 영화와 TV연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생 시절 만들었던 영화 <원티드>로 골든로즈 어워드와 비터컵 어워드 등을 비롯한 유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편 코미디 시리즈 <래피드 리스폰스 코어>와 TV 단막극 <바다로의 여행>의 각본가이자 프로듀서, 감독이었으며, 기타 연출작으로는 TV 일일극 <금지된 사랑>, 범죄 시리즈 <매기는 어디에?> 등이 있다. 그는 불가리아 영화 및 텔레비전 연출자들의 조합 필름오서의 회원이다.

Stanislav Donchev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Film and TV Directing from New Bulgarian University in Sofia. His student film *Wanted*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national Golden Rose Award and the Bitter Cup Award. He is a scriptwriter, producer and director of the feature cinema film comedies *Rapid Response Corps* series and the short TV novella *Journey to the Sea*. His directorial work also includes the daily TV drama series *Forbidden Love*, and the crime series *Where is Maggie?* He is a member of Filmauthor, the Union of Bulgarian Film and TV directors.

콜롬비아 Colombia

새의 노래를 따라서: 콜롬비아 북부 여정
The Birders: A Melodic Journey through Northern Colombia

Documentary | 2019 | 52' | Color | G

영화는 현지 새 관찰 가이드인 디에고 칼데론 프랑코와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 키스 래진스키가 새들의 노래와 색깔, 날갯짓을 따라 콜롬비아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여정을 따라간다. 라과히라 주 로스플라멘코스 동식물 보호구역에서부터 엘도라도 자연조류보호구역과 산타마르타의 타이로나 국립자연공원을 지나 페리하산맥의 엘차미세로에 이르는 여행에서 그들은 지역공동체와 새, 음악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The documentary follows Diego Calderón Franco, local observation guide of birds, and Keith Ladzinki,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while travel through various parts of Colombia guided by song, color and flapping of birds. From the Sanctuary of fauna and flora Los Flamencos, in La Guajira, passing through the El Dorado Natural Bird Reserve and the National Natural Park Tayrona, in Santa Marta, to the El Chamicero, in the mountains of Perijá they discover cultural links of communities with birds and music.

Director
그렉 블리크니 Gregg Bleakney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수여하는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작가이자 사진가,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기도 했던 그렉 블리크니는 2005년, 좀더 창조적인 삶의 여정을 찾고자 아메리카 대륙을 자전거로 종단하는 장대한 여행을 시작했다. 2년간의 여행 후, 그는 세계적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이자 제작사인 웨어넥스트를 설립했다. 웨어넥스트의 설립자로서 그는 페이스북, 월드 노매즈,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캣 풋웨어, 레이, 파타고니아, 디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위한 영상을 연출하며 7대륙을 누볐다.

In 2005, National Geographic Scholarship recipient, writer, photographer, and aspiring Olympic athlete Gregg Bleakney packed up his life and embarked on an epic bicycle trip down the length of the Americas in search of a more creative life journey. After two years on the bike, Gregg founded WhereNext, a global creative agency and production company. As the founder of WhereNext, he has travelled to all seven continents directing video productions for international clients including Facebook, World Nomads, Columbia Sportswear, Cat Footwear, REI, Patagonia, and Dior.

이집트 Egypt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Drama | 2017 | 95' | Color | 12

마흐무드의 삶은 다른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복사판이다. 기관에서 데이터 입력 타이피스트로 일했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으며, 전통적인 삶을 살았다. 조기 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를 열고, 이곳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타자를 친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공룡의 멸종에 대한 리포트의 타자를 맡기고, 마흐무드는 자신의 삶과 멸종된 공룡 사이의 이상한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Mahmoud's life is a 'photocopy' of millions of others. He worked as a data-entry typist in the same government job, never married, he lives a traditional life. When he settles for early retirement, he buys a nearby Storefront and sets up "Mahmoud's photocopy." Here, he makes photocopies and types up documents. One day, a student asks him to type up a report on the extinction of dinosaurs. Mahmoud can't help but begin to see some strange parallels with the state of his own life.

Director
타메르 아슈리 Tamer Ashry

타메르 아슈리는 영화, 텔레비전, 광고 분야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진 중동의 감독, 프로듀서, 각본가이다. <픽처스 프롬 가자>, <7번째 전쟁>, <디센트 리빙>, <시체 안치소의 이웃>을 비롯한 그의 다큐멘터리들은 PBS, BBC, 알자지라 등 유수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캠페인에서도 방영되었다. 그의 첫 장편 극영화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는 엘구나영화제와 트리폴리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말뫼아랍영화제 관객상 등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Tamer Ashry is a director, producer, and writ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film, television, and commercials in the Middle East. His documentaries, such as *Pictures from Gaza*, *The 7th War*, *A Decent Living*, and *Neighbors of the Morgue*, have been featured on PBS, BBC, and Al-Jazeera as well as human rights campaigns for the UN. His first feature film *Photocopy*, has been screened internationally and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Best Feature at El-Gouna Film Festival and Tripoli Film Festival, and the Audience Award at Malmö Arab Film Festival.

요르단 Jordan

캡틴 아부 라에드
Captain Abu Raed

Drama | 2007 | 97' | Color | 12

아부 라에드는 암만국제공항에서 잡역부로 일하는 외로운 남자다. 그는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해본 적 없지만 책과 여행객들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날, 아부 라에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장의 모자를 줍게 되고, 그 모자를 본 동네 아이들은 그를 비행기 조종사라 생각하고 관심을 쏟는다. 친분을 나눌 사람들이 생긴 것이 기쁜 아부 라에드는 전 세계 다채로운 곳들에 대해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들로 아이들을 이끈다.

Abu Raed is a lonely janitor at Amman's International Airport. He has never had a chance to see the world himself, but he experiences it vicariously through books and brief encounters with travelers. Finding a discarded captain's hat in the trash at work one day, he gets the attention of the neighborhood children, who believe him to be an airline pilot. Happy for the company, Abu Raed takes the children to colorful places around the world, through his fictional stories.

Director
아민 마탈카 Amin Matalqa

아민 마탈카의 첫 장편 <캡틴 아부 라에드>는 2008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시네마 관객상을 수상했고, 요르단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출품된 작품이다. 그는 또한 디즈니의 첫 아랍어 영화 <유나이티드>를 비롯하여 배우 아만다 플러머가 공동 주연한 영화 <스트레인즐리 인 러브> 및 <랑데부> 등을 연출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첫 아랍어 오리지널 시리즈 <진>의 파일럿 에피소드의 공동 각본가였으며, 두 개의 에피소드를 직접 연출했다. 영화연출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모교 미국영화연구소에서 영화연출을 지도하고 있다.

Amin Matalqa's first feature, *Captain Abu Raed* won the Sundance Film Festival's World Cinema Audience Award in 2008 and became Jordan's first Oscar entry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He directed Disney's first Arabic language film, *The United*, and his other features includes *Strangely in Love*, co-starring Amanda Plummer, and *The Rendezvous*. In Television, Amin co-wrote the pilot and directed two episodes of Netflix's first Arabic original series, *Jinn*. He teaches directing at the American Film Institute, from which he also has his MFA in Directing.

페루 Peru

나는 아직 살아있다
Sigo Siendo

Documentary | 2013 | 120' | Color | 12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한 영화로, 서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곳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페루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작품이다.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을 찾아가며 해변, 안데스, 아마존이라는 페루의 위대한 세 지역을 탐험한다.

Sigo Siendo talks about music and musicians. It is a film of personal stories, apparently very distant in a country that tries to find and to draw its identity. It travels through an unknown and remote Peru, through its three great worlds: the Coast, The Andean world and the Amazon.

Director
하비에르 코르쿠에라 Javier Corcuera

하비에르 코르쿠에라는 1967년 리마 출생으로, 페루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세계의 뒤편>, <바그다드의 겨울>, <기억의 게릴라>, <인비저블스> 등을 연출했으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로 리마영화제 최우수 라틴아메리카 다큐멘터리상을 비롯한 15개의 국제적인 상들을 수상했다.

Javier Corcuera was born in Lima, 1967. He is a Peruvian director and scriptwriter. His films include *La espalda del mundo*, *Invierno en Bagdad*, *La guerrilla de la memoria* and *Invisibles*. With *Sigo Siendo*, he won the Best Latin American Documentary Film at Lima Film Festival as well as 15 other international awards.

러시아 Russia

백야
The White Nights

Drama | 2017 | 93' | B&W | 15

몽상가 청년 표도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걷던 중 한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곧 사랑에 빠진다. 그들은 로맨틱한 백야를 함께 보내고, 도시를 함께 걸어 다니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함께 저지르고, 모든 것에 대해 토론한다. 표도르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쓰디 쓴 실망을 마주해야 한다. 여인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있기 때문이다.

A dreamy young man named Fyodor D. meets a charming young girl while walking in St. Petersburg, and immediately falls in love with her. They spend a few romantic white nights, walking around the city, doing crazy and fun things and discussing everything. A dreamer is full of love, but he has to face a bitter disappointment — the girl's heart was taken and broken by another person.

Director
안드레이 보가티레프 Andrei Bogatyrev

안드레이 보가티레프는 1985년 모스크바 출생이다. 2005년, 러시아국립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제작으로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첫 장편영화 <버기>를 연출했으며, 이 영화는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경쟁부문에 오른 바 있다. 2013년 <유다>, 2019년 <와일드 리그>등을 연출했다.

Andrey Bogatyrev was born in Moscow in 1985. In 2005, he graduated from the Russian State University of Cinematography (VGIK) with a degree in Documentary Filmmaking. In 2011, he directed his first full-length feature *BUggY*, which was accepted into the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Perspectives competition. His filmography also includes *Judas* (2013) and *The Wild league* (2019).

타티아나 보로네츠카야 Tatyana Voronetskaia

타티아나 보로네츠카야는 모스크바 로소필름의 창립자이자 총괄책임자이며, 다큐멘터리 및 극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이다. 1981년부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소유즈물트필름에서 편집책임자로 일했으며,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 영화촬영국가위원회 기술부서 책임자였다. 1990년부터 러시아국립영화학교의 공연 스튜디오 Ars-90의 부원장으로 일했다.

Tatyana Voronetskaia is a producer, director of documentary and feature films, general director and founder of Rossfilm Company in Moscow. From 1981, she worked as chief editor of Soyuzmultfilm animation studio; from 1983—1990 she was director of the scientific-methodical department of Goskino of the USSR. Since 1990, she has worked as deputy director for the Theatrical Studio Ars-90 at VGIK.

터키 Turkey

커미트먼트
Commitment-Asli

Drama | 2019 | 132' | Color | 15

아슬리는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유모를 찾는 젊은 엄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유모 귈니할을 만난다. 귈니할 역시 엄마다. 귈니할이 삶에 들어온 후, 아슬리는 회피해왔던 비밀들을 마주하게 된다.

Asli, a young mother who is trying to find a nanny to get back to work, finally meets young Gülnihal. Gülnihal is also a mother. With Gülnihal coming into her life, Asli faces her secrets which she has been avoiding herself.

Director
세미 카플라노글루 Semih Kaplanoğlu

세미 카플라노글루는 터키에서 현재 가장 호평 받는 작가, 감독, 제작자들 중 한 명이다. 장편 데뷔작이었던 <어웨이 프롬 홈>으로 싱가포르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고, <에그>로는 국내외 30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2008년, <밀크>는 베니스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고 이스탄불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협회상을 비롯하여 유수의 국제상을 수상했다. 또한 <허니>로 제60회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그레인>으로 제 30회 도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Semih Kaplanoğlu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writer -director-producers of contemporary filmmaking in Turkey. His debut feature *Away from Home*, was awarded the Best Director in Singapore Film Festival, and with *Egg*, he received around 30 award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stivals. In 2008, *Milk* premiere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and also received international awards, such as FIPRESCI prize at the Istanbul Film Festival. With *Honey*, he won the Golden Bear award in 60th Berlinale and won the Best Film Award in 30th Tokyo Film Festival for *Grain*.

주최 Host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 Co-Host